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의 최근 민주화 운동 동향

이현정 · 국별조사실 조사역

I. 머리말
II. 국가별 정치 현황

III. 최근 민주화 운동의 원인과 동향
IV. 맺음말

<요 약>

비교적 동질적인 언어,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발전해 온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독립 이후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각국 정부는 왕정, 이슬람공화제, 대통령중심제 등 다양한 정체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석유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경제성장 및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발전하게 되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졌으나, 정치 상황은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후퇴한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갔다. 여기에 물가 폭등 및 고실업의 경제난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민주화 열풍이 시작되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한 민주화 시위는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화 열풍이 리비아, 바레인 등의 주변 국가로 번지게 되면서 민주화 사태는 민주화 혁명, 부족 간 갈등, 종파 간 갈등 등 여러 갈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민주화 사태를 바라보는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정세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 머리말

서방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¹⁾ 지역 국가들은 1900년대 중반에 독립한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각국은 왕정, 이슬람공화제, 대통령중심제 등 다양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²⁾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HDI) 개선 순위³⁾에 따르면 총 135개국 중 튀니지가 6위를 차지하여 말레이시아, 홍콩, 멕시코, 인도를 앞섰으며, 이집트도 14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튀니지의 평균 기대수명은 74세로 튀니지 GDP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헝가리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집트 어린이의 69%가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역시 급속히 개선되었다.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의 경제와 생활환경은 급속도로 개선되었으나, 정치 상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히려 후퇴하였다. 왕정 국가에서는 국왕 일가가 왕권을 세습하고 있으며, 대통령 중심제 등 비교적 현대적 정치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특정인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재 및 장기집권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권력은 물론 경제 발전에 따른 각종 혜택을 국가 원수와 일부 측근들이 독점하고 있다.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학대와 체포를 지속하고 있어 정치면에서는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화 열풍도 비껴갔던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최근 민주화의 기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11년 1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한 민주화 열풍은 이제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발전하게 되었고 정치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최근 물가 폭등 등의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분노로 폭발하게 된 것이다.

1) MENA의 범위는 기관별, 경우별로 다름. 세계은행은 중동 14개국(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가자지구, 예멘)과 북아프리카 7개국(모로코, 알제리, 지부티, 이집트, 리비아, 몰타, 튀니지)을 MENA로 구분함.

2)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원유 매장량은 전세계의 61.2%, 천연가스 매장량은 44.3%를 차지하고 있음.

3) 제20차 연례인권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최근 40년 사이 인간개발지수의 개선 순위를 보여줌. 인간개발지수는 경제성장, 보건, 교육 등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임.

본 고에서는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⁴⁾ 각국의 정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민주화 시위 동향 및 원인 분석을 통해 민주화 사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국가별 정치 현황

1. 지역 개관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비교적 동질적인 언어,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발전해 왔으며, 공통적 특성으로 인해 정변이나 혁명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력이 급속히 이웃 국가로 파급되기도 하였다. 중동에서 발원한 이슬람교는 이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잡아 정치,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석유 등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하였다. 1900년대 중반까지 공통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가들은 독립 이후 각기 다른 정치 체제하에서 정치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림 1>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도



4)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른 MENA 지역 21개국 중 가자지구, 지부티, 몰타를 제외한 1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체제는 왕정, 이슬람공화제, 대통령중심제 등 다양하다. 걸프협력회의⁵⁾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 회원국과 요르단, 모로코는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슬람 고유의 공화제를, 리비아는 카다피의 정치 철학을 집대성한 인민직접참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알제리, 예멘 등의 여타 국가들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등 비교적 현대적인 정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북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정치체제

| 국가 | 정치체제 | 국가 원수 | 임기 | 집권 기간 |
|------------------------------------|----------------------|---|----|---------|
| 사우디아라비아 | 세습군주제 | 국왕 Abdullah bin Abd al-Aziz Al Saud | 종신 | 6년 |
| 오만 | 세습군주제 | 국왕 Qaboos Bin Said al-Said | 종신 | 41년 |
| 바레인 | 입헌군주제 | 국왕 Hamad bin Isa al-Khalifa | 종신 | 12년 |
| 모로코 | 입헌군주제 | 국왕 Mohammed VI | 종신 | 12년 |
| 요르단 | 입헌군주제 | 국왕 Abdullah ibn Hussein al-Hashemi | 종신 | 12년 |
| 카타르 | 입헌군주제 | 국왕 Hamad bin Khalifa Al Thani | 종신 | 16년 |
| 쿠웨이트 | 입헌군주제 | 국왕 SABAH al-Ahmad al-Jabir al-Sabah | 종신 | 5년 |
| 아랍에미리트 ⁶⁾ | 연방공화제 | 대통령 Khalifa Bin Zayed Al-Nahyan | 5년 | 7년(2선) |
| 리비아 | 인민직접참여제 (Jamahiriya) | 최고 지도자 Colonel Muammar Qadhafi | 없음 | 42년 |
| 이란 | 이슬람공화제 | 대통령 Mahmoud Ahmadinejad | 4년 | 6년(2선) |
| | | 최고 지도자 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 종신 | 22년 |
| 레바논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Michel Sulayman | 6년 | 3년 |
| 시리아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Bashar al-Assad | 7년 | 11년(2선) |
| 알제리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Abdelaziz Bouteflika | 5년 | 12년(3선) |
| 예멘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Ali Abdullah Saleh | 7년 | 33년(3선) |
| 이집트*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Hosni Mubarak | 6년 | 30년(5선) |
| 튀니지* | 대통령중심제 | 대통령 Zine El-Abidien Ben Ali | 5년 | 24년(5선) |
| 이라크 | 내각책임제 | 대통령 Jalal Talabani | 4년 | 6년 |
| 이스라엘 | 내각책임제 | 대통령 Shimon peres | 7년 | 4년 |
| 중동 13개국 (군주제 6개국, 대통령중심제 등 기타 7개국) | | | | |

* 민주화 사태 직전의 국가 원수임.

자료: EIU.

5) 걸프만 연안의 6개 산유국(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에 설립한 기구임.

6)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움알카이와인,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 등 7개의 에미리트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연방정부는 대통령제이나, 각 에미리트는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아부다비의 지도자가 7개의 에미리트 지도자가 모인 연합최고회의(Supreme Council of Rulers)에서 자동적으로 선출되고 있음.

그러나 이 지역은 상이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현 정부의 집권기간이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왕정 국가는 왕권이 국왕 일가에 세습되고 있으며, 독특한 인민직접참여제로 운영되고 있는 리비아는 최고지도자 카다피가 임기 없이 42년째 집권하고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들도 임기 연장이나 불법 선거 등을 통해 현 대통령이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예멘의 살레 대통령이 33년 간 집권하고 있는 등 레바논을 제외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의 평균 집권기간이 22년에 달하고 있다.

2. 중동 주요국의 정치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교율법 샤리아(Shariah)를 국법으로 한 정교일치의 절대군주국으로서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 수장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1932년에 국명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변경하고 이븐 사우드(Ibn Saud 또는 Abdel-Aziz bin Abdel-Rahman al-Saud)가 초대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알 사우드 (Al Saud) 왕가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현 압둘라 (Abdullah bin Abdel-Aziz al-Saud) 국왕은 파흐드 (Fahd bin Abdel-Aziz al-Saud) 국왕 서거 후 2005년에 제6대 국왕으로 즉위하였으며,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제 육성, 경제 인프라 건설, 교육체계 개편 등 점진적인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압둘라 국왕이 총리를 겸임하고 있고 술탄 (Sultan bin Abdel-Aziz al-Saud) 왕세제가 제1부총리 및 국방부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내무부장관, 각 주지사 (13개 주), 군부 및 경찰을 포함한 주요 요직을 알 사우드 가 왕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나. 바레인

바레인은 입헌군주제⁷⁾ 국가로 1783년부터 칼리파 (Khalifa) 왕가가 통치하고 있으며, 1999년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heikh Hamad Bin Issa Al-Khalifa)가 즉위하여

7) 2002년 헌법 개정으로 정당 활동을 허용하였으며, 상·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를 구성하였음.

12년 간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왕이 국무총리와 각료를 임명하며, 국왕 이외에도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Shaikh Salman bin Hamad Al Khalifa) 왕세자와 민주화 시위로 사임한 셰이크 칼리파 (Sheikh Khalifa)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201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총 40개 의석 중에서 친 정부 성향인 수니파가 13석, 시아파는 18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칼리파 가문을 포함한 소수의 수니파가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아파를 통치하고 있으며, 왕실 일가 등 수니파가 국가 요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니파 왕실의 오랜 통치로 인한 차별 정책과 부정부패 등으로 대다수 시아파는 낮은 생활수준과 출세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양 종파간의 대립이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되어 왔다.

다. 모로코

모로코는 북부 아프리카 유일의 왕정 국가로 1666년에 알라위트 (Alaouite) 왕조가 즉위한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거쳐 현재까지 알라위트 왕가의 통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1999년에 시디 모하메드 (Sidi Mohammed) 6세가 제18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모로코의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로 왕권은 절대적인 권력이며, 상속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왕은 수상 임명권과 각료 임명권을 행사하며, 행정부는 의회 다수파 중 국왕에 의해 지명되는 수상과 수상의 제청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는 각료로 구성된다. 의회제도는 1996년 제4차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로 확립되었다. 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상원의 임기는 9년으로 60%는 지역별로 선출하고 나머지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라. 요르단

요르단은 194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왕정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1952년 헌법 제정으로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5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하원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국왕은 총리임명권과 의회해산권, 국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다.

1999년에 취임한 압둘라 2세 국왕은 2009년 11월에 높은 실업률과 경제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명령하였고, 동년 12월 요르단 왕실과 가까운

정치 명문가 출신인 사미르 리파이(Samir Rifai)를 신임총리로 임명하였다. 리파이 총리 내각은 시장 개방과 친서방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다.

요르단은 압둘라 국왕의 확고한 통치체제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온건한 이슬람 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정치·사회적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군, 정보부 등 권력기관이 국왕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보이고 있어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마. 리비아

리비아는 1951년 무하마드(Muhammad Idris)를 국왕으로 하는 연방왕국을 건설하였으나, 1969년에 무아마르 알 카다피(Muammar Al-Qadhafi)를 중심으로 한 청년장교들이 무혈 혁명을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 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후 혁명평의회 의장인 카다피가 국가원수 및 군최고사령관을 겸직하여 왔으며, 1997년에 통치기구 개편으로 설치된 총인민회의(General People's Congress)가 카다피의 제3세계 이론에 입각한 인민주권 선언을 승인하면서 독특한 인민직접참여제(Jamahiriya)⁸⁾가 수립되었다. 카다피는 이 체제 하에서 의회나 정당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1인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카다피는 정부 조직의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혁명의 지도자⁹⁾ 및 군최고사령관으로서 사실상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행정 담당 기관인 총인민위원회(General People's Committee)가 존재하고 있으나, 카다피가 혁명위원회(revolutionary committee)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과 각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42년간 장기집권체제를 지속한 카다피는 2009년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Saif al-Islam)에게 공식적으로 국가 최고위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후계 구도를 구상하였다.

마. 이란

1926년부터 지속된 팔레비 (Pahlevi Dynasty) 왕조의 지나친 친미 노선에 대한 반감으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1979년에는 이슬람 성직자인 호메이니의 지도 아래 민중봉기에 성공하여 이란 최초의 공화국이 설립되었다. 정치체제는 최고지

8) 카다피 특유의 이슬람 이론을 혼합한 '그린북(Green Book)' 사상에 의거한 체제로 리비아는 헌법 없이 인민대중국 체제와 코란으로 사회질서를 규율하고 있음.

9) 1990년 3월 총인민회의에서 추대됨.

도자 중심 체제¹⁰⁾로서 최고지도자 아래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고지도자¹¹⁾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최고통수권, 군사령관 임명권, 대통령 인준 해임 및 국정조정회의 의장, 사법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임명권 등을 행사한다. 행정 수반에 불과한 대통령은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3회 이상 연임이 불가능하다.¹²⁾

현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은 2005년 선거에서 저소득층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2009년에 실시된 10대 대선에서도 개혁파 무사비 (Mousavi)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현 정부의 강경보수정책에 따른 보혁 갈등으로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 알제리

알제리는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민주인민공화국이 성립되어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의 일당 체제가 지속되었으나, 1989년 2월에 정당구성을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되면서 FLN의 권력 독점이 종결되었다.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되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다.

1999년에 당선된 부테플리카 (Abdulaziz Boutef) 현 대통령은 2004년에 연임하였으며, 2008년에 헌법의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을 개정한 후 2009년 대선에서도 90.2%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3선에 성공하였다. 1996년 제정된 헌법으로 과격이슬람단체가 불법화된 이후 이슬람무장세력과 군부와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준내전상태의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진압과 사회 평화 정책 실시 등으로 과격이슬람단체의 무장 투쟁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 최고성직자가 최고지도자가 되는 신정공화국체제임.

11) 최고지도자의 임기는 종신으로 사망 또는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출함. 현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Khamenei)는 제2대 최고지도자로서, 초대 최고지도자인 호메이니(Khomeini) 사망 후 1989년 6월 취임하였음.

12) 2회 연임 후 쉬었다가 다시 출마가 가능함.

아. 예멘

예멘은 1990년 이전까지 회교주의 성향의 북예멘과 사회주의 체제의 남예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북예멘에서는 1962년에 군부가 쿠데타로 이만 (Iman) 왕정을 타도하고 예멘아랍공화국(Yemen Arab Republic)을, 남예멘에는 1967년에 민족해방전선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타도하고 예멘인민민주공화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을 세웠다. 이후 쿠데타와 내전으로 혼란을 겪던 남예멘과 북예멘은 1990년에 동서 화해 분위기에 따라 통합에 합의하여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m)을 선포하였으며, 북예멘의 살레 (Saleh)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남예멘의 알 베드 (al-Baydh) 최고 인민회의 의장이 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통합 이후 북예멘의 국민의회당과 남예멘의 예멘사회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였고 1993년에는 아랍 국가로서는 획기적으로 자유민주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북예멘과 남예멘 세력 간의 갈등으로 1994년에 내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남북 세력 간의 내전이 북예멘 세력의 승리로 끝나면서 북예멘 세력이던 살레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살레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임기를 7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 왔다. 1993년과 1999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살레 대통령은 2006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33년간의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집트

1952년에 나세르 (Nasser) 중령 휘하의 자유장교단 혁명이 발생하여 왕정이 폐지되고 나세르를 대통령으로 하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 건립되었다. 1981년에 3대 대통령인 사다트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부통령이었던 무바라크(Muhammad Hosni Said Mubarak)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2011년 민주화 시위로 물러날 때까지 30년간의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였다.

무바라크는 집권당인 국민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의 과반수 의석 확보, 헌법 개정을 통한 이슬람교 과격세력의 통제 등을 통하여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였다. 국제 사회의 정치개혁 요구에 따라 2005년에 실시된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도 승리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였고, 201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국민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83%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야당 및 이집트 국민들은 2010년 총선

결과가 현 정권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부정 선거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개혁을 요구하였다.

차. 튀니지

1956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튀니지는 1957년에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선언되었으며, 독립운동가 하비브 부르기바(Habib Bourguiba)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87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벤 알리 (Ben Ali) 대통령은 부르기바의 통치 기조인 친서방, 온건 외교노선, 안정적 사회개혁 및 국가통제가 가미된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외 정세안정과 경제성장에 주력해 왔으며, 2011년 민주화 시위로 물러날 때까지 24년간의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였다.

벤 알리는 2002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3선 초과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75세까지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5선 연임에 성공하여 강력한 통제 정치를 유지하였다. 정치적으로 뚜렷한 대안 세력이 없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큰 반발 없이 안정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자유주의자 및 이슬람주의들에 대한 정치적 배제, 강력한 언론 통제 등으로 젊은 층의 정권혐오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III. 최근 민주화 운동의 원인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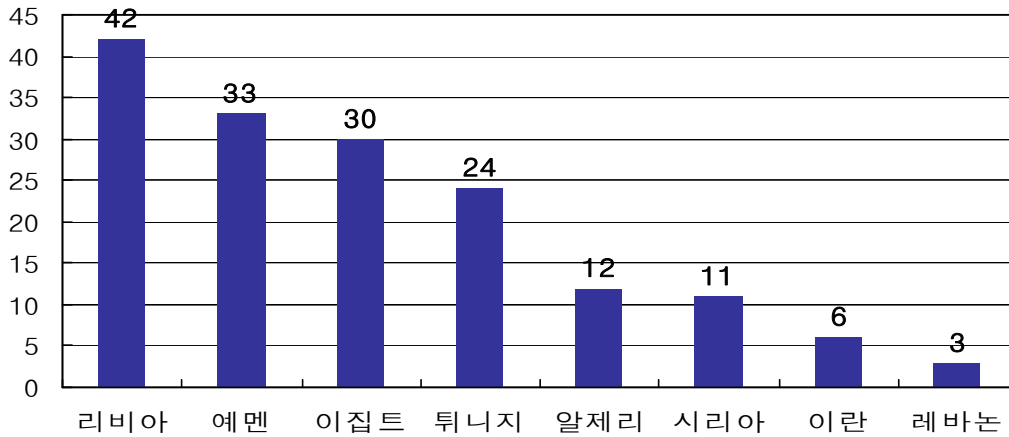
1. 민주화 운동의 발생 원인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장기집권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인권 탄압이 빈번하며,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극심한 빈부 격차로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식료품 등의 국제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극빈층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또한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졌는데, 서구 문화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IT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의 대두는 정치 및 경제 불만을 외부로 폭발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그림 2>

주요 비왕정 국가의 집권 기간

단위: 년



가. 장기 집권에 따른 정권의 부정부패 만연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대부분 현 정부의 장기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왕권이 국왕 일가에 세습되는 왕정 국가를 제외하더라도 대다수 국가 원수들의 집권기간은 10년을 초과하고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 최고지도자가 42년으로 최장기 집권기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멘의 살레 대통령도 33년 간 집권하고 있다.

왕정 및 독재 정권의 장기집권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부정부패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튀니지에서는 벤 알리 전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이 금융업에서부터 이동통신사,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족벌형 재벌그룹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반정부 시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 리비아도 카다피 일가가 국영석유회사에서 개인 이익을 챙기고 사병조직 창설을 시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 및 호화 생활은 정부의 언론 탄압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등 매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나. 극심한 빈부 격차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2010년 1인당 GDP는 대표적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16,188달러에 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를 운용하는 금융 시장이 발달한 바레인도 17,334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주요국의 경제 현황 (2010년 기준)

| | 1인당 GDP (달러) | 인구 (백만 명) | 성장률 (%) | 물가상승률 (%) | 실업률 (%) |
|---------|-----------------|--------------|------------|--------------|------------|
| 바레인 | 17,334 | 1.2 | 4.2 | 3.3 | - |
| 사우디아라비아 | 16,188 | 27.1 | 4.3 | 5.4 | 5.6* |
| 리비아 | 12,200 | 6.5 | 3.3 | 2.5 | - |
| 이란 | 5,478 | 75.1 | 2.9 | 10.1 | 13.2 |
| 알제리 | 4,251 | 35.9 | 4.1 | 3.9 | 9.9 |
| 튀니지 | 3,723 | 10.4 | 3.4 | 4.4 | 14 |
| 요르단 | 3,563 | 6.4 | 3.2 | 6.1 | 12.5 |
| 모로코 | 2,839 | 32.3 | 3.2 | 1.4 | 9.8 |
| 이집트 | 2,567 | 84.6 | 5.1 | 11.1 | 9.7 |
| 예멘 | 1,335 | 24.3 | 6.2 | 11.0 | - |

* 2007년 수치임.

자료: EIU 및 World Bank.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부 집권 계층만이 이러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어 빈부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인구 중 1일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중은 이집트가 2005년을 기준으로 18.5%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중동 최빈국인 예멘은 무려 46.6%에 달했다. 독재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빈부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국민에게 제공되던 각종 보조금과 혜택들이 점차 감소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깊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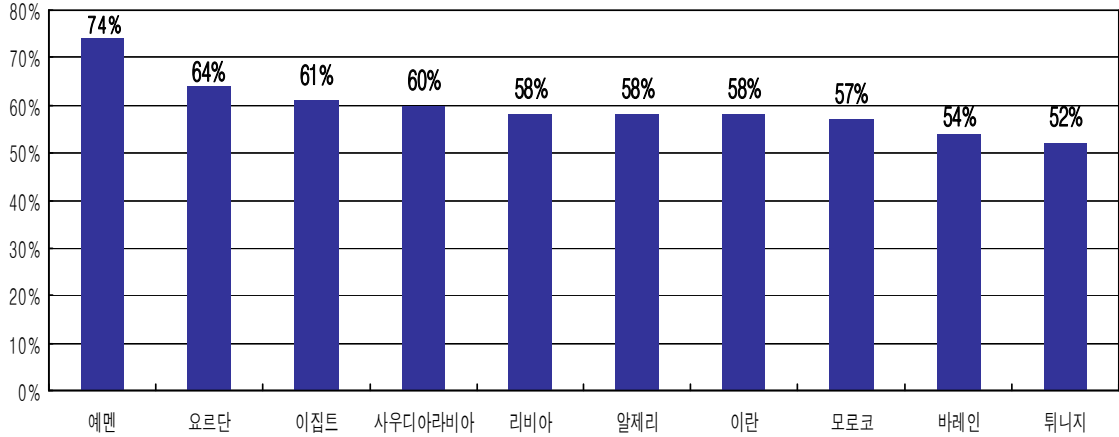
다. 높은 실업률과 물가고 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

이집트의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1%를 기록하는 등 높은 물가상승률도 민주화 시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빵과 곡물, 설탕 등 필수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정부의 보조금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 위기감이 높아졌고 급격하게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

높은 실업률도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켰다. 공식 실업률 기준으로 이란 13.2%, 이집트 9.7%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국가가 10%에 가까운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30%에 육박하여 고등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대 정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튀니지 혁명을 촉발시킨 무함마드 부아지지(26세)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 3>

주요국의 30세 미만 인구 비율 (2010년 기준)



자료: United Statistical Databases.

라. 신세대 청년층의 대두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경제 성장 등으로 생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영,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 청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30세 미만의 인구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예멘이 74%, 민주화 시위를 성공시킨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각각 52%와 61%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50%를 넘어섰다. 국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층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서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그 과정에서 독재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이 높아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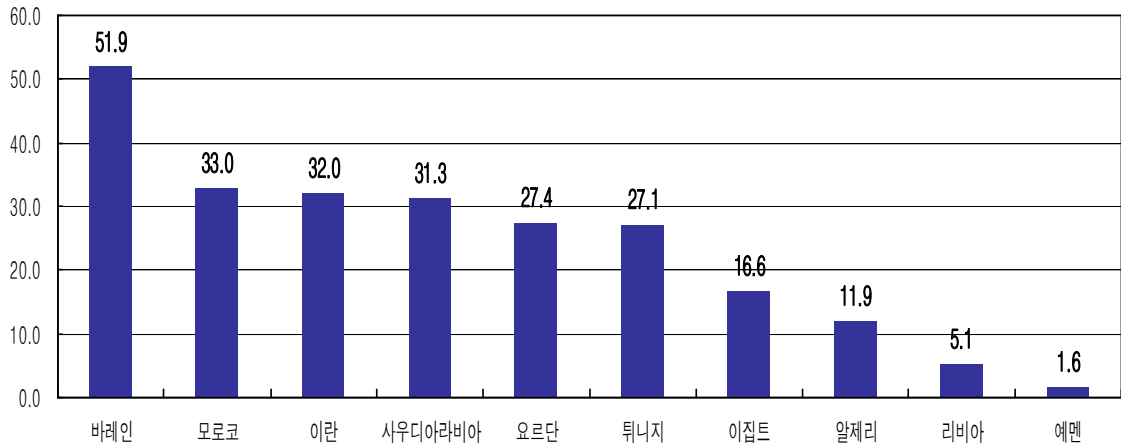
청년층을 주축으로 한 첨단 기술의 활용은 민주화 운동을 촉발·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바레인의 인터넷 사용률이 51.9%에 이르는 등 이 지역의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은 평균 3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보급률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년들은 휴대전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였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는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독재국가에서 진실을 전달하는 대안 언론의 역할을 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경찰의 폭행으로 인권운동가 칼레드 사이드가 사망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스북 페이지가 시위의 촉매 역할을 하였고, 튀니지에서는 시위사태를 은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의 폭동과 과잉 진압을 담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공개되면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집트와 튀니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시켜 SNS를 통한 시위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트위터 등 SNS 제공자들이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있는 우회 수단을 제공하면서 민주화 시위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4> 주요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 (100명 당, 2008년 기준)

단위: 명



자료: World Bank.

또한 SNS는 시위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며 민주화 혁명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SNS를 통해 전달된 시위 소식은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를 유발하였으며, 시위대는 SNS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운동 세력을 조직화하였다.

마. 이슬람교의 종파 간 갈등

이슬람교의 종파 간 갈등 역시 일부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교는 수니파(Sunnis)와 시아파(Shiis)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들 간의 대립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다.¹³⁾ 왕정 국가인 바레인에서는 소수인 수니파가 각종 경제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인구의 약 70%를

13) 이슬람교는 예언자인 무함마드(Muhammad) 사후에 후계자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종파가 갈리게 되었음. 수니파는 무함마드 이후의 4명의 칼리프(수장)를 모두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제4대 칼리프)와 그 후계자를 지지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 무슬림 중 시아파는 15%에 불과함.

차지하는 시아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시아파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왕실의 차별 정책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 3> 주요국의 이슬람 종파 비율

단위 : %

| |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아랍에미리트 | 바레인 | 이란 |
|-----|---------|------|--------|-----|----|
| 수니파 | 90 | 60 | 80 | 30 | 10 |
| 시아파 | 10 | 40 | 20 | 70 | 9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두바이사무소

2. 민주화 운동 동향

가. 튀니지

2010년 12월 중순에 수도 튀니스에서 200km 떨어진 시디 부지드(Sidi Bouzid)에서 수백 명이 높은 실업률에 항의하며 반정부 시위를 시작하였다. 초기에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약속하는 등 유화적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나 시위 사태는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벤 알리가 2011년 1월 14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면서 24년간 지속되어 온 벤 알리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에 푸아드 메바자 (Foued Mebazaa) 하원의장이 헌법에 따라 과도정부의 임시 대통령이 되었고, 23명의 과도정부 내각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모하메드 가누치 (Mohamed Ghannouchi) 총리를 비롯하여 국방, 내무, 재무, 외무 등 벤 알리 정권의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유임되자, 과도정부 각료로 임명된 일부 야당 인사들이 사임하였고 내각 구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2011년 1월 27일에 과도정부가 시위대의 구체제 인사의 퇴진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료 23명 중 12명을 교체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다. 과도정부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나. 이집트

튀니지에서 발생한 반정부 혁명은 물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고통 받던 이집트로 확대되어 2011년 1월 25일에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대통령의 연임 제한, 야권 인사의 대선 출마 허용, 공공 부문 급여의 15% 인상

등 개혁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시민들은 무바라크의 퇴진 및 의회 해산,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하였다. 이어 중립을 유지하였던 군부가 국민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하면서 결국 시위 발생 18일 만에 무바라크의 30년 장기집권체제가 막을 내렸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군사평의회가 권력을 이양 받아 2011년 9월로 예정된 대선 까지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군사평의회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2011년 3월 19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가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동의 없이는 비상계엄령을 6개월 이상 발령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리비아

2011년 1월 13일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지에서 카다피의 퇴진과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튀니지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시위 지역에 군과 용병을 보내 무력 강경진압을 시작하였으며, 무차별적인 학살과 진압으로 수천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반정부 시위는 초기에는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 성격이 짙었으나, 점차 부족 간 갈등으로 변질되어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리비아의 500여 개 부족¹⁴⁾ 중 카다피 부족의 리더인 카다피는 주요 부족 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적들을 숙청하면서 무려 42년 간 철권통치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하여 와르팔라 및 주와야족 대표들이 독재와 부패에 반발하여 카다피의 하야를 요구하며 여타 부족과 연합하여 반정부 진영을 구성하였다.

반정부 세력은 벵가지에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위원장인 무스타파 압델 잘릴 (Moustapha Abdeljalil)이 “국가위원회가 전체 리비아의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반정부 세력에 가담한 외교관 출신의 압둘 라만 살감을 유엔 대사로 임명하여 국제 사회와의 의사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내전 초기에는 반정부 세력이 수도 트리폴리까지 넘볼 정도로 우세하였으나, 카다피 친위대의 막강한 군사력에 밀려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카다피 정권이 반대파를 철저히 억압해 온 탓에 반정부 진영을 통합할 조직이나 인물이 없었고,

14) 3대 부족인 와르팔라, 주와야, 카다피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정에 병력의 80% 이상이 카다피의 지휘를 받고 있어 양 진영의 전력 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다. 카다피군은 우세한 병력과 장비로 반정부 진영이 점거하였던 도시를 차례로 탈환해 갔으며, 최후의 거점인 벵가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카다피의 무자비한 강경 진압에 반발한 국제 사회가 개입하게 되면서 리비아 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17일에 리비아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 휴전 의사를 밝혔던 카다피 정부가 3월 19일에 이를 번복하고 벵가지 공격을 감행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내전은 국제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라. 바레인

왕정 국가인 바레인은 소수인 수니파의 칼리파 가문이 20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시아파와의 갈등이 깊어졌으며, 2011년 2월 14일에 수도 마나마에서 시아파가 주축이 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하마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국왕이 각료 5명 중 4명을 시아파로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고 자신의 삼촌이자 치안 담당자인 셰이크 칼리파 총리를 사퇴시켰으나, 시위대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하였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영향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칼리파 국왕은 3월 14일에 GC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들은 GCC 공동방위조약에 따라 군 병력 1,000명과 경찰 500명을 급파했다. 주변 왕정 국가의 도움으로 바레인 정부는 3월 15일에 3개월간의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시위는 더욱 격렬해져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생업에만 몰두하던 대다수 시아파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종파 간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이라크, 레바논 등 주변국에서도 파병 반대 및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국제적 종파 갈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마. 기타

예멘에서는 32년간 독재체제를 지속한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2월 초부터 벌어졌다.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던 살레 대통령은 야권에 연립정부 구성을 제의했으나 야권은 이를 거부하고 대규모 시위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부족장들이 연정 참여 반대 및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였다.

3월 21일에는 살레의 최측근인 알리 모흐센 알-아흐마르(Ali Mohsen al-Ahmar) 소장 등 군 장성 3명이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공직자들의 사임 발표가 잇따르는 등 집권층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어 살레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1월 말부터 수도 암만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등에 항의하며 사미르 리파이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압둘라 국왕이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2월 1일에 리파이 총리가 사임하였으나, 국왕의 내각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정부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란은 수도 테헤란에서 2월 20일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으며, 치안 부대가 최루탄을 쏘며 무력으로 진압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자 2월 22일에 야당 지도자인 메흐디 카루비(Mehdi Karroubi) 전 국회의장의 측근이 시위대에게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반정부 시위는 중단되었다.

왕정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전된 모로코에서도 2월 20일에 헌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고, 알제리에서도 3월 4일에 제2의 도시인 오란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각지에서 민주화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2월 말에 370억 달러 규모의 복지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각국 정부는 민주화 시위로 폭발한 민심을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V. 맺 음 말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그 변화의 대부분은 쿠데타 등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며, 일반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었다. 또한 권력을 잡은 이들의 독재 및 장기집권으로 부정부패와 인권 탄압 등이 만연하게 되어 이 지역의 정치 상황은 사실상 후퇴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 등 각종 IT 기술이 발달하여 정보의 생산과 보급이 확대되고 용이하게 된 현대 사회에서는 독재 정부가 언론 통제 등을 통해 국민들을 지배하는 정치 체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고등 교육을 받은 청년층 인구가 증가했으며, 서방 국가와의 교류로 정치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이에 반해 정치 상황은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후퇴한 경우가 많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 갔다. 또한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로 인해 빈부 격차가 심해

지고 물가 폭등 및 고실업의 경제난까지 더해지면서 마침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는 국민들의 자각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배후 세력이나 조종자가 없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정치 개혁의 시도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종교, 종파, 정파를 초월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정치 개혁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부로부터의 개혁인 것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민주화 시위가 장기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하였으나 진정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큰 과제가 남아있다. 민주주의를 평화적으로 정착 시키는 것이다. 과거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던 일부 국가의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권위주의로 되돌아가거나 민주주의 발전이 답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민주화를 달성했던 소련 및 동구권 국가 28개국 중 14개국은 부분적으로만 자유로운 국가이거나 독재 국가로 남아 있다.

민주화 물결이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더욱 복잡한 갈등의 양상으로 바뀌게 된 점도 향후 주시해야 할 점이다. 리비아에서는 500여 개가 넘는 부족 간의 갈등으로 변질되어 내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바레인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간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리비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양 종파의 종주국이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에 개입하게 되면서 사태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혁명, 부족 간 갈등, 종파 간 갈등 등 여러 갈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태를 바라보는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지역의 정세 불안은 당분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 시사저널, 고민 깊어진 '바람 앞의 왕실'들, 2011. 3
_____, 중동의 잠 깨우고 펼쳐 일어난 'R세대'의 돌진, 2011. 3
_____, 혁명의 폭풍, 어디까지 몰아칠까, 2011. 3
한국수출입은행, 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3
_____,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_____, 아랍에미리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_____, 알제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9
_____, 요르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0
_____, 이집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2
_____, 튀니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2
한국수출입은행 두바이사무소, 민주화 시위 진행상황 등 중동지역 최근동향, 2011. 2
Bernard Lewis 외, 이슬람문명사, 이론과 실천, 1980
Dani Rodric, 독재의 빈곤, 한겨레, 2011. 2. 22자
LG 경제연구소, 중동 민주화 도미노의 경제적 파장, 2011. 3
www.eiu.com
www.imf.org
www.worldbank.com